

첫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평신도

평신도 기도주간 5.27(월) ~ 6.1(토)

5.27(월) 기도 5.28(화) 말씀 5.29(수) 전도
5.30(목) 인내 5.31(금) 치유 6.1(토) 사랑

2013. 6. 2

제 35회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제35회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 목차 |

I. 평신도주일에 즈음하여 _한양수 감독	2
II. 평신도주일의 의의 _선철규 부장	4
III. 설교자료 _이웅천 목사	6
IV. 예배자료 _김형래 목사	11
V.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행사자료	22
VI. 평신도재능기부 운동	25
VII. 생명나눔운동	30
VIII. 교인생활수칙	34
IX. 첨부자료	35



한양수 감독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감리교회의 평신도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시고 평신도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평신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마땅히 그 할 일들을 정해주셨습니다. 이는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평신도에게는 평신도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평신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며,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참으로 기뻐하시며, 우리를 잘 했다고 칭찬하시고 하늘에 큰 상급을 예비해 두

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평신도 여러분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전해지고 있으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귀한 평신도들이 자리하고 계심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신 감리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감리교회의 부흥과 이 땅의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누가 알아주는 거창하고 역사적인 큰 사건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감리교회와 기독교의 미래는 밝습니다. 저는 감리교회를 빛내고 계신 평신도 여러분이 기독교를 빛내는 평신도가 되시며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평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감리교회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세워지게 합니다.

평신도 주일을 즈음하여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평신도 주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기고 결단하며 감리교회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평신도”

선철규 부장
사회평신도국 총무 직무대리



2013년 제35회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5,800교회와 160만 감리교인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 따라 매년 6월 첫째 주일과 그 한 주간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올해로 제35회 평신도주일(6월 2일)을 맞이합니다.

감리회 교회력에 평신도주일을 두고 이를 지키도록 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해 52주 주일 모두가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일임에도 특별히 6월 첫째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지키게 한 것은 평신도주일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며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에는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밑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게 하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3년도 사회평신도국 주제는 “첫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평신도”입니다. 감리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평신도들이 먼저 첫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전국 감리교회에서 평신도주일을 성수하여 평신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첫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평신도주일 자료집에는 주간 성구와 기도문 그리고 예배문과 평신도주일 성수자료를 수록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평신도주일과 주간 행사를 실시하는데 특히 평신도주일 기간인 5월 27일(월)~6월 1일(토)은 ‘평신도 기도주간’으로 지켜주시고, 6월 2일(주일)은 평신도들이 주관하는 ‘평신도주일’예배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해 협력해 주시는 연회 감독님, 관리자님, 지방 감리사님,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평신도부 총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ew Beginning! 새 일을 행하십시오

이사야 4장 18~19절

이웅천 목사

남부연회 대전둔산지방 둔산성광교회 담임



요즈음 어떤 모임이나 기관에서 함께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해옵니다. 이런 기관과 모임들은 존재의 의미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이 모임들은 우리 사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기여합니다. 21세기의 시대적 소명과 세계 교회를 위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뿐이고, 여러 일을 감당하기에는 영적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모임이나 기관의 참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먼저 “무엇을 위한 기관인가? 무엇을 위한 모임인가?”를 묻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공동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가려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기관과 집단이 있었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당파나 모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집단으로 평가받는 것이 ‘클래팸 파’ (Clapham sect)입니다.

이들은 영국의 클래팸이라는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주 모여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

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자주 만나고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며 신앙을 나누는 데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조국의 현실과 장래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식, 재산, 직업,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지도층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 은행가, 기업인, 성직자, 학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신도들로서 각자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일에 헌신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회의 기득권층이었으나 자신들이 누리는 사회적 특권과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고통 받는 어려운 이웃에게 눈을 돌렸고, 하나님의 공의가 영국사회에 펼쳐지는 일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팸 파에 속했던 은행가 헨리 소튼(Henry Thornton)은 선한 사역을 위해서 수입의 6/7을 헌신했고, 토지와 재물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영국뿐 아니라 세계를 섬기는 선교단체, 사회를 위한 선교기관들이 설립되었고 영국사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이 창립되고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 대부분의 구성원이 영국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유니테리언도 있었고, 웨슬리 운동에 참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클래팸 파가 어떤 열매를 맺었기에 역사는 이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증언합니까? 이들이 시작하고 추진한 선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교회사를 연구하는 이상규 교수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교양으로 읽는 역사』, p196-199)

첫째, 1799년 ‘영국교회선교회’(CMS, Church Missionary Mission)가 조직되었습니다. 영국교회 선교회는 1815년부터 1891년까지 650여명의 선교사를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에 파송함으로써 본격적인 해외선교의 장을 열어갑니다. 특별히 이들의 선교정책은 조선선교의 기본 틀을 형성합니다. ‘자

치, 자립, 자전'의 네비우스 정책은 바로 영국교회선교회 창립회원인 헨리 벤의 선교전략이었습니다.

둘째, 1804년 '대영성서공회'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가 창립되었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인쇄와 보급이 필요하다는 시대적인 판단에 따라 대영성서공회를 세웁니다. 대영성서공회는 세계의 모든 국가와 민족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는 거룩한 혁명의 시발점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성서공회'의 모체가 바로 1895년 설치된 대영성서공회 조선지부입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읽게 된 데에는 대영성서공회 조선지부의 역할이 큼니다. 특별히 대영성서공회 조선지부는 성경을 인쇄했을 뿐 아니라, 권서를 채용하여 성경을 전국에 보급합니다.

셋째, 1807년 영국에서 노예매매와 노예무역이 금지되고 1833년 대영제국 내에서의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일입니다. 이 일은 정치가인 윌리엄 월버포스가 주도하였습니다. 월버포스는 존 뉴튼과 웨슬리의 기도와 지도 가운데 영국사회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묵인 자에게 자유를!” 이는 월버포스의 일생의 과제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쉼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데 헌신한 귀한 크리스천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클래팸파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19세기 성경을 통한 복음증거와, 선교회를 통한 해외선교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노예무역 폐지를 통해 잘못된 서구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면 클래팸에 가서 이분들을 직접 만나면 좋겠다는 즐거운 상상을 하곤 합니다. 오후에 여유로운 티타임을 가지며 윌리엄 월버포스를 만나 어떻게 영국사회의 주류정신과는 반대되는 ‘노예무역폐지’를 담대하게 외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태생적인 소유에 대한 욕심과 싸워 이겼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는지 헨리 소른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 이들의 삶에 새겨진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으며 신앙의 옷깃을 새롭게 여미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삶의 향기를 맡을 때면 언제나 마음속에 또렷이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8~19)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나라보다 오랫동안 외부의 침략으로 고통 받은 나라입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노예생활과 외부 국가들에 의한 약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스리실 때 종종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고 심판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회개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제 2이사야(40~55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였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와 땅을 잃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삶의 핍절만이 가득했던 포로생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자유에 대한 목마름과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끓주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막에 길이 나고 강들이 흐르며 여호와와 영광이 앞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며 그 길을 뒤따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묵인 자가 자유케되며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목마른 모든 영혼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나, 특별히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새 일

을 이루어 나갑니다. 클레팜 파를 통해 당시 인권이 유린되며 자유를 억압하던 영국사회에 하나님의 의와 새 일을 이룬 것처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고국 땅을 환희와 감격으로 밟았듯이, 월버포스를 통해 영국사회에 억압된 노예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렸듯이, 지금 스스로 노예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선포하며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의 새 주역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모임과 어느 삶에 서 있는지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일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클레팜 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삶을 통한 감명과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은혜를 전했듯이 여러 모임과 만남들 사이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슴 깊은 울림을 주기를 꿈꾸어 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가슴 저릿한 감동으로 서로에게 참된 신앙의 울림과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1. 평신도 기도주간 묵상문

김형래 목사
동부연회 우두교회 부담임
감신대 예배학 외래교수



소개하는 6편의 묵상문은 평신도주일(6월 2일)을 맞이하는 주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한 주간에 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기도주간 : 5월 27일(월) ~ 6월 1일(토)





성경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예레미야 29:12)

기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하는 자의 소원과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지음 받은 유한한 인간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알
면서도, 세상의 지식과 재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
지 않은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
쳐주시고 친히 기도의 삶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
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신
비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
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기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 보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 뜻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던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16)

기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무지와 가난, 죄악과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었을 때, 선교
사와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
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모두
전도자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
안에 그리고 전 세계에 기쁨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저희를 사
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홀히 여기시는 이시니라”(야고보서 5:11)

기도

인내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며 복을 내려주시는 공홀하신 하나님!
작은 참을성도 갖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
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도 손해 보지 않으려 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면서도 작은
억울함도 참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
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
처를 주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옴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 위에 인내의 덕을 더하여 주셔서 가
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끝까지 참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
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과 아픔
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1 (금)



성경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14)

기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치료자이신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며 영과 육이 상한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다시금 붙들어 세워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헛된 세
상 향락을 버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빛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감리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어서 속히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치유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
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한1서 4:8)

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희가 그 크
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는 일에 인색했
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대접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려 하
지 않는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
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예배문

말씀과 성찬이 함께 있는 평신도주일 예배문

집례자 : 장로 대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전주.....반주자

* 입례송 29장(성도여 다 함께) 다함께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사 55:1~2)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평신도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 경배찬송..... 15장(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 시편교독..... 교독문 40번(시편 96편) 다함께

* 삼위영가.....	3장(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여선교회 회장
기도응답송.....		찬양대

말씀의 선포와 응답

* 성경봉독	1) 구약의 말씀 : 왕상 8:22~23, 41~43	남선교회 회장
	2) 신약의 말씀 : 눅 7:1~10	청장년선교회 회장
	3) 오늘의 말씀 : ()	설교자(목사 또는 장로)

찬양

설교

동영상시청 (평신도주일 동영상)

※ 다운로드: 감리회본부 www.kmc.or.kr 사회평신도국 자료실

합심기도

- 1)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 2) 감리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 3) 평신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봉헌찬송

* 봉헌기도

감사의 성찬과 나눔

성찬찬송 227장(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다함께

성찬으로의 초대 목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
 을 덧입기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서는 사
 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권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
 으로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제정사..... 목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
 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임재의 기원 목사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
 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
 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
 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다함께

분별례..... 목사

(목사는 떡을 두 손으로 들고 떼면서)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
 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
 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목사는 잔을 두 손으로 든 후)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분급 목사와 분급위원

성찬 후 감사기도..... 다함께

구원의 주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부르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사 성령의 능력 안에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함께

교회소식 집례자

세상으로 나아감

* 결단찬송 459장(누가 주를 따라) 다함께

* 파송말씀 다함께

목사 :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회중 : 성령이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 축도 목사

후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1.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1) 평신도주간과 평신도주일 성수로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소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평신도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평신도 단체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우리 감리교회의 특별한 신앙실천운동입니다.

평신도주일 성수를 통하여 평신도들이 교회 행사의 실제적인 주관자가 되어 나누고 섬기는 신앙 실천을 통하여 평신도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2) 금년 평신도주일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모습인 말씀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웨슬리의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의 주간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3) 방법

가. 평신도주일 1주 전 평신도주간(5월 마지막주: 5/27~6/1)에 주일자료집에 수록한 “요일별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평신도사명에 대하여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 “평신도주간 기도문”을 전교인에게 배부하여 기도주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 평신도주일 예배시 **제35회 평신도주일 동영상**을 전 교인이 함께 시청합니다. (다운로드: www.kmc.or.kr 사회평신도국 자료실)

다. 개체 교회는 신앙의 실천이 강조되는 평신도주일 성수의 의미를 2~3

주 전부터 후보에 홍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개월 전에 사회봉사부가 주관이 되어 각 기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개체교회에 합당한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실천항목 선정 및 기관별 담당을 정하여 격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평신도주일로 지킵시다.

라. 평신도주일·주간행사는 지방 사회평신도부 목적사업에 초점을 두되,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봉사 사업이나 평신도 중점 사업과 자료에 예시된 사업을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4) 평신도주일헌금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주일을 성수하고 드린 헌금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취합하여

- ① 70%는 지방 사회평신도부 목적사업, 지방 평신도 및 사회봉사 사업 기타 지방 협력 사업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 ② 30%는 본부의 평신도운동 활성화 사업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주일헌금

송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우리은행 1005-201-023587

농 협 1277-17-001024 (예금주:기독교대한감리회)

5)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첨부자료의 개체 교회 **평신도주일성수 결과보고서①**을 취합하여 **평신도주일성수 결과보고서②**를 작성하고 이를 7월 30일까지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팩스(02-399-4350)나 우편 또는 e-mail : itd30@hanmail.net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사일지는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행사주관	프로그램	방법
개 교회	평신도 기도주간 5/27(월)~6/1(토)	· 평신도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는다. · 평신도주일 1주 전 주일에 전교인에게 '주간 기도문'을 배부한다. · 요일별 기도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평신도주일 예배 6월 2일	· 평신도주일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린다 · 예배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한다.
	미자립 교회 방문	· 특별헌금이나 기금으로 한다.(목적사업) · 전도와 지역봉사를 함께 겸하면 더욱 좋다. · 방문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본다.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 생활 속의 신앙 실천운동이 되게 한다.
	'생명나눔운동'	· 장기기증 서약식을 갖는다 · 전교인 헌혈을 한다.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참여	· 재능기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로 보낸다 · 재능기부사업에 후원한다.
지방	평신도주일 연합예배	· 연합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찾고, 미리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 반드시 감리사와 교역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얻어야 한다. ·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을 다짐하는 순서를 갖는다. · 지방 감리교 희망봉사단 발대식을 같이 한다.
	평신도주일 교환예배	· 강단교류, 외부강사 초빙, 열린 예배(연극, 워십 댄스 등) · 목적(특별) 헌금을 드린다. · 예배 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한다.(사회, 기도 등)
	평신도상 수여	· 사회봉사상, 효자효부상 등 · 연합예배로 시상하는 것이 좋고, 선정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 개체 교회에 의뢰하여 신청을 받고, 상패와 부상을 준비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재능을!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크고 작은, 다양각색의 재능과 기술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재능,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나구요?
피아노 치는 것만 재능이 아닙니다.
집안을 깨끗이 쓸고 닦는 일, 맛난 반찬을 만드는 일까지
모두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재능입니다.

사회평신도국은 평신도 한분 한분의 재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특기와 재능을 '평신도 재능 기부은행'에 넣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적·영적·물질 재능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겠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 썩어져 가는 이 사회에
'희망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에
참여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접수방법

- 1) E-mail 접수 : itd30@hanmail.net
(신청서 다운로드 : www.kmc.or.kr 사회평신도국 자료실)
 - 2) FAX 접수 : ☎ 02-399-4350
 - 3) 우편물 접수 :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사회평신도국
- * 문의 : 평신도부 박은애 부장 ☎ 02-399-4346~9



평신도 재능기부은행 등록신청서

지원자 성명	한글		영문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양 / 음)				결혼	기혼 / 미혼
연락처	집		인터넷폰			
	휴대폰		E-mail			
주소 (우편물 수령지)	집					
	직장					

교회활동	소속 교회	연회	직분		최종 학력 [√표]	고졸()	초대졸()
		지방	교회 봉사 부서			대졸()	대학원()
		교회				대학원 이상()	
				전공			

지원 분야 [√표] (중복 가능)	의료	교육	건축	IT/컴퓨터	기술분야			행정관리		
					공업	농업	상업	사무행정	문서/자료	
	후원			문화/예술/취미교실 과목				기타 재능 분야		
	재정	물자	인력자원	연극영화	음악	레크레이션	스포츠	은사	봉사	기타
* 상기 재능기부 항목 외에 기부 가능 재능분야를 쓰세요.										

지원분야 경력사항	* 구체적인 내용을 쓰세요.
특기사항 (자격증)	

위와 같이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평신도 재능을 모아서 해외선교로

심재화 장로
서울남연회 강서지방 오곡교회,
전 몽골 Huree정보통신대학 교수



지난 해 장로회 전국연합회 영성 집회 때 평신도 재능기부운동에 대해 처음 들었다. 평신도들의 재능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하며 지금이라도 시작한 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평신도의 재능 기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복음에 빛진 나라이다. 험벗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120여 년 전, 이 땅에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과 의료선교를 통해 이 땅을 섬기지 않았던가! 6·25전쟁 때 군사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 오늘의 이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닌가! 이런 결과는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는 국민의 열의와 교육열 등 많은 사회적 동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계 각처에서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교육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해외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통계를 보면 2011년도 실제 파송 선교사 수는 총 23,331명으로 2010년에 비해 1,317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파송선교사수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25,000여 명을 파송하고 있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국력으로 볼 때 우리가 사실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본다.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 수만큼 하나님은 그 나라의 국

력을 키워주신다는 말을 믿는다. 파송선교사가 2만 명을 넘자 우리의 일인당 국민소득도 2만 불이 넘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 고령화시대를 지나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많은 전문 지식인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전문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 그들이 평생 익혀온 전문지식을 어려운 나라에 기부하는 것은 받는 나라나 주는 재능인 모두에게 삶의 보람이 될 것이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내가 경험하기로는 재능 기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먼저 본인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재능이 있더라도 본인의 결단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언어문제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져서 동남아나 동북아 지역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현지인들이 많아 통역을 통해 우리말로 사역할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본인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날씨, 음식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기부할 수 있는 재능은 현지요청에 의해 정해지지만 이미용 기술, 컴퓨터 이용에 관한 다양한 기술, 인터넷 사용방법, 검색, 저장, 음악, 농사기술, 각종 조립기술 한국어 강의, 그림 그리기, 각종 만들기, 농기구 만들기 등 수없이 다양하다. 또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재능은 그곳에서 필요한 과목을 미리 제시해 요청하기도 한다.

사장되어가는 재능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송구스런 일이다. 우리가 복음에 빛진 국가와 민족으로서 이제는 세계 각국에 나가 우리의 전문지식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 선교사들도 이미 수 년 혹은 십수 년 전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전문 재능인력들을 기다리고 있다. 재능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높은 관심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웨슬리 선생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미주 선교에 나섰다가 미국 감리교회의 기초를 만들었듯이 이제는 우리도

재능기부를 통해 그 같은 위업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본다.

주님은 지금도 영혼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진 빛을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위해 전문지식과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주님이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하고 재능 기부를 실천에 옮기는 한국감리교회 평신도들이 되길 기도한다.

모든 열매의 시작은 씨앗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장기기증,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택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윤전면허증 장기기증 희망의사표시제 안내



장기기증희망등록시 운전면허증에 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차량이 국유장기이식
공인센터에 등록되어, 누구나 운전면허를 신청 발급, 재발급 또는 영인할 때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기증비밀을 수수로 의의 추가제출 필요)

면허를 발급시 등록 여부를 창구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기증 절차안내

장기기증 희망등록 ▶ 등록증(면허증) 휴대 ▶ 장기기증 등록 사실증
기록 및 장지들에게 알림 ▶ 기증신청(사서 및 사망) 발송서
1588-0692로 연락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T. 1588-0692



생명
나눔
사람들

장기기증(희망등록)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캠페인은
(사)생명나눔을나누는사람들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함께 진행 합니다.



(사)생명나눔을나누는사람들은 순교한 사람의 실천을 통해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감리교 목회자들이 모여 설립한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헌혈을 비롯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혈액캠페인 아이암 어린이 자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수동 35-13 3F | Tel 1588-0692 | Fax 02-2618-7179 | Homepage <http://kals.or.kr>



◆ **장기기증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택입니다.**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은 숭고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감리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헌혈을 비롯해 장기기증 희망등록, 각막이식 수술비 및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지원 캠페인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과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 법 인 명 :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 주요사업 : 장기기증자 모집 및 관리, 각막이식 수술비 및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 센터 운영
- 홈페이지 : <http://KALS.or.kr>
- 전자우편 : donation2001@naver.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35-13 3층
- 대표전화번호 : 1588-0692
- 팩스번호 : 02-2618-7179

※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 **‘생명의 빛’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함께 ‘사순절 생명의 나눔 선포식’을 갖고, 교단과 함께 장기기증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사회평신도국과 함께 전국 11개 연회를 중심으로 장기기증 인식개선 교육 및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업내용 : 장기기증 인식개선 교육 및 희망등록 캠페인
각막이식 수술비 모금 및 지원 캠페인 등
장기기증 서약식 등
- 진행일정 : 사회평신도국, 연회, 지방, 개체교회와 세부일정 협의 후 진행 함
- 관련문의 :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조정진 목사(☎ 010-3899-0126)

◆ 각막(안구) 기증으로 '생명의 빛'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막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513명입니다. 대기자 통계가 비교적 정확하게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1,907명부터 계산해 보면, 매년 각막 이식 대기자는 200여명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각막 이식 수술은 최근 연간 600여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구(각막) 기증은 기증자가 사망 후에 기증할 수 있으므로, 기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거의 없고 또한 사후 화장 비율이 80%를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반해, 각막 기증이 오히려 감소하고 그로인해 이식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사업내용 : 시각 장애인에 대한 각막 이식 수술비 지원 및 이식 절차 지원
- 지원내용 : 각막 이식자 1인에게 검사비 및 수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 관련문의 :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사무국 (대표전화번호 1588-0692)

◆ 헌혈 및 장기기증 안내

♥헌혈운동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 혈액원과 연계한 헌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각막기증

각막은 우리 눈의 맨 앞쪽에 위치한 투명한 조직으로 안구를 보호하고 빛을 받아 시신경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각막기증은 시력과 무관하며, 80세까지 전염성 질환이 없으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콘택트 렌즈 형태의 각막만을 적출하기 때문에 시신

의 외형은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약 20만명의 시각장애인들 중 2만여명은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이식수술을 받는 사람이 200여명에 불과할 만큼 각막 기증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는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와 외상으로 인해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 시 가족회의 등을 통해 기증의사를 밝히면, 각막을 비롯한 심장, 간장, 폐장, 신장 등의 장기를 적출하여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후 조직기증

장기 이외에도 뼈, 연골, 피부,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 신체의 일부 요소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사후 조직기증을 통해 화상 환자들의 피부이식,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해 조직의 기능적 장애를 입은 환자 및 중도 장애인의 이식 수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절차

장기기증 희망등록 → 등록증(면허증) 휴대 → 장기기증 등록 사실을 가족 및 친지들에게 통보 → 기증상황 발생시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에 연락

♥장기기증 의사표시 제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시,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 의사가 표기되며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기독교대한감리회 160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받들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3.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4.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보호에 헌신한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1. 현수막 견본

2013년도 주제 : 첫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평신도

제35회

경 평 신 도 주 일 축

기간 : 2013. 5. 27 ~ 6. 2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 ○○연회 ○○지방 ○○교회

2. 현금봉투 견본

제 35회

평신도주일 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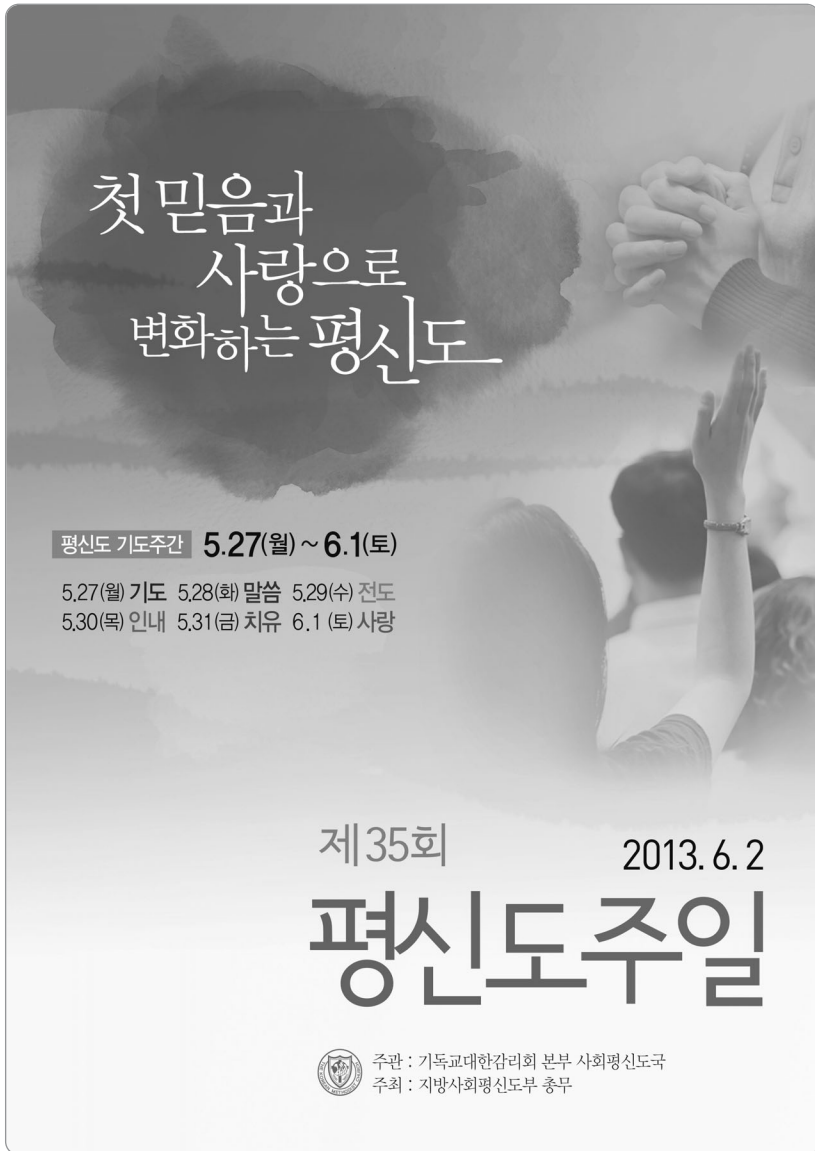
2013년 6월 2일

■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하여

■ 지방사회평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	교회
봉헌액		
이 름		

3. 포스터



첫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평신도

평신도 기도주간 5.27(월)~6.1(토)

5.27(월) 기도 5.28(화) 말씀 5.29(수) 전도
5.30(목) 인내 5.31(금) 치유 6.1(토) 사랑

제35회 2013.6.2
평신도주일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 지방사회평신도부 총무

4.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①

수 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제 목: 제35회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1. 교회 주간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특기사항

2. 현금 영수기

총헌금액	지방사회평신도부 사업비	기타
원	원	원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3년 월 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지방
 교회 담임목사 (인)
 사회봉사부장 (인)

5.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②

수 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제 목 : 2013년 제35회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1. 성수교회 현황

교회명	헌금봉헌액	비고	교회명	헌금봉헌액	비고
			합계		

2. 지방 및 개체교회 평신도주일 주요 행사

♥ 평신도주일헌금 송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우리은행 1005-201-023587
(예금주 : 기독교대한감리회) 농 협 1277-17-001024

_____연회 _____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_____(인)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발행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발행일 | 2013년 4월 23일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 02-399-4346~8 Fax. 399-4350

* 비매품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 02-399-4346~8 Fax. 399-4350